

교과명 : 대학글쓰기
분 반 : 003
과제명 : 02 문화비평문

학 과 :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학 번 :202411032
이 름 : 김우현

초고작성일 : 2024년 05월 24일
1차 피드백 : 2024년 05월 31일
여러 차례 피드백을 수행했을 경우 모두 적어주세요.
최종과제제출일 : 2024년 00월 00일

초고본	01쪽
1차 피드백 및 반영표	02쪽
최종 과제 제출본	

- *여러 차례 피드백을 받고 수정했을 경우 줄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 *줄 추가 CTRL + enter 줄 삭제 F5(칸지정) -> F8(줄지정) -> Del.

글쓰기 윤리 준수 서약서

나는 “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 교과목에서 제출하는 과제물 작성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이 름 : 김우현

과제물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이 과제물은 내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이다. (v)
2. 인용한 모든 자료(책, 논문, 인터넷자료 등)의 인용 표시를 바르게 하였다. (v)
3. 인용한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 (v)
4. 정확한 출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다. (v)
5. 과제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v)
6. 이 과제물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없다. (v)

-출처 : 연구윤리정보센터, 『학습윤리 가이드: 배우고 익히는 우리의 자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3, 70쪽 참조.

02 문화비평문

◆ 대상 텍스트 개관

트루먼 쇼는 1988년 개봉된 미국의 사실주의 영화이다. 줄거리를 잠시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트루먼은 감독 크리스토퍼가 방영하는 트루먼 쇼라는 방송의 주인공이다. 트루먼 쇼는 트루먼이 태어날 때부터 트루먼의 현재까지 모든 순간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방송이며 전 세계에서 지켜보는 유명한 방송이다. 하지만 막상 주인공은 트루먼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찍히고 있고 매 순간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트루먼은 단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이 트루먼 쇼를 위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현재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평범히 트루먼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재등장, 자신에게만 내리는 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화 소품 등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트루먼은 결국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조작되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자 감독인 크리스토퍼와 제작진들은 그런 트루먼을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트루먼은 탈출에 성공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이러한 내용의 트루먼 쇼에서 우리는 대중 매체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 편파적인 정보 전달로 인해 대중 매체에서 오는 정보를 비판적 사고 없이 수용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트루먼 쇼 그리고 오늘날의 대중 매체와 비판적 사고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02411032 김우현

1. 대중 매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2. 대중 매체의 편파적인 정보 전달과 사라진 비판적 사고
3. 더 필요한 문제를 바로 잡는 소수의 사람들

1. 대중 매체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

오늘날 대중 매체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와 근접해 있다. 또한 그 수와 종류가 아주 많으며 지금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대중 매체는 만들어지고 올라오고 있다. 대중 매체는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현재로서는 빠져선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녹아 들어있고 유용한 대중 매체는 오늘날 마냥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않다. 정보를 일방적이지 않게 청자와 교환하고 다방면으로 전달해 주는 대중 매체가 있는 반면 반대로 단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대중 매체도 매우 흔하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는 한정된 정보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는 대중들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대중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대중들이 수동적으로 여러 매체를 접한다면 능동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라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모습을 트루먼 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씨 헤이븐 이라고 불리는 큰 세트장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중계하는 모습을 보면 일방적으로 트루먼 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지만 하지 막상 트루먼 쇼를 보는 시청자들은 어떠한 의견조차 전달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시청자들은 수동적으로 방영되는 방송만 쪽 바라 볼 뿐 그 누구도 트루먼에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트루먼 쇼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말이다. 시청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의견을 전달할 매개체조차 없는 외부와 분단된 씨 헤이븐 세트장은 오늘날 대중 매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닮아있는 거 같다.

2. 대중 매체의 편파적인 정보 전달

오늘날 대중 매체의 문제점 중 일방적인 정보 전달도 문제이긴 하지만 편파적인 정보 전달 또한 큰 문제이다. 대중 매체라 함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보여지는 매체이다. 그렇기에 대중 매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즉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해선 안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중 매체에선 흔하게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 하는걸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는 큰 문제를 유발한다. 편파적인 매체를 본 사람들은 제대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위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와 같은 잘못된 정보도 곧이곧대로 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과 지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편파적인 정보 전달로 극심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등장한다. 이런 문제는 편파적인 정보 전달이 흔한 정치 쪽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는데 실제로 영국의 해리 왕손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들은 편파적이며 통제, 공포감, 독성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이 우리가 영국을 떠난 이유”¹⁾ 이처럼 대중 매체의 편파적인 정보 전달은 읽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넓은 범위로 피해를 준다.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일보에선 이런 말을 했다. “대중매체가 상업화되고, 선동적인 보도나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 현실 비판 능력(비판적 사고)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가치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²⁾ 또한 위에 말한 내용처럼 정치쪽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니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이런 말을 한다. “오늘날과 같이 대중 매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중 매체가 대중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정치권력에 부당하게 이용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³⁾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며 문제인 대중 매체의 편파적인 정보 전달은 트루먼 쇼에서도 볼 수 있다. 트루먼 쇼를 보면 감독의 지휘하에 상황을 연출시켜 트루먼의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기도 하며 여러 연출을 통해 트루먼의 삶이 문제가 없다고 보여준다. 그렇기에 시청자들은 직접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트루먼 쇼라는 관음증⁴⁾과도 같은 범죄와 동일한 방송에 대해 문제

1) 동아일보) 해리 부부 “편파적 매체 때문에 영국 떠나” vs 英 언론 “스포츠라이트 당연” 2021.
2) 전북일보) 대중문화 소비자는 능동적인가 2009.
3) 고등학교 『사회 문화』교과서 (5.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4) 네이버 국어사전) 훔쳐보기, 비밀스러운 목격자, 의심, 엿보기, 정체 발각의 모티프를 내재하고 있다. 작품 예시 - 이창(1957), 트루먼 쇼(1998)

점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시청한다. 그렇기에 트루먼 쇼는 문제 없이 계속 방영되고 트루먼이라는 피해자도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감독은 이런 장면을 통해 오늘날 대중 매체의 편파적인 정보 전달을 비판한 게 아닌가 싶다.

4. 더 필요한 문제를 바로 잡는 소수의 사람들

대중 매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편파적인 정보 전달 등 여러 문제가 눈에 띄게 준비하지만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은 오늘날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더욱 많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은 게 이 사회의 문제라 생각된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위 문제를 깨달았는지 한 뉴스에선 대중 매체의 위기 상황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⁵⁾ 며 기사를 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정보 전달을 막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도 조명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차가운 현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트루먼 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트루먼 쇼를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와 달리 트루먼 쇼의 사실을 트루먼에게 홀로 알려 주고 정보를 주려고 하는 실비아라는 인물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과 같이 실비아는 다른 사람들의 조명, 도움은 받기 어렵다. 제작진들과 감독이 크리스토퍼에게 억압받아 번번이 실패한다. 실비아처럼 능동적인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있었다면 트루먼은 진작에 트루먼 쇼의 존재를 깨닫고 말만 세트장이고 사실상 감옥과도 같은 씨 헤이븐을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트루먼 쇼 감독은 이런 현실을 작품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 실비아 같은 인물을 더 넣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오늘 트루먼 쇼를 통해 오늘날의 대중 매체에 문제를 알아보았다. 기술이 발달하며 대중 매체가 열을 올리기 시작한 1988년 오늘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니 피터 위어 감독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닐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2024년인 현재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에 큰 문제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걸 알지만 이번 기회에 대중 매체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기 자신도 수동적인 청자가 되어있지 않은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 같다. 이 말을 끝으로 본 글을 마무리한다.

5) 미디어 오늘)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2021.